수원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조직 개편

기획팀 신설… '기업유치단→추진단' 확대 구성

R&D사이언스파크등 1단계 3.3㎢ 조성 추진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경기 수원시가 10월1일 조직개편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한다. 기존 기업유치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기업유치팀, 경제자유구역기획팀, 투자유치팀, 대외협력추진팀, 첨단산업진흥팀으로 구성된다. 개발계획수립, 관련기관 협의, 국내·외 투자유치, 투자 기업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한다.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했다.

시는 202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해 11월 최종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2단계로 6.6㎢까지 규모를 확장해 총 9.9㎢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민·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내·외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임종민 기자 lim@siminilbo.co.kr

추석 연휴 안전재난대응 공백 제로화

성남시, 종합대책 시행… 24시간 상황반 운영

교통·편의·물가등 7개분야 25개 대책반 편성

경기 성남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9일 연휴 7일간 안전, 교통, 편의, 방역, 물가, 나눔,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분야에 25개 대책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 기간, 846명이 상황 근무를 한다.

시는 안전 분야를 최우선으로 24시간 재난 재해 대책 상황반을 운영해 사건 사고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대형 할인점 등 41곳의 다중이용시설과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지역내 업소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를 점검해 먹거리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는 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성묘객과 귀성객 이동 시간대에 21개 노선의 시내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한다.

야탑동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 19대, 고속버스 58대를 필요시 추가해 임시 배차한다.

주차 불편 최소화를 위해선 학교와 공영주차장 222곳(2만3358면)을 무료 개방한다.

편의 분야는 청소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쓰레기 비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에너지 수급 대책반도 운영해 연료 공급을 안정화하고, 가스·전기·유류 사고에 대비한다.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는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지역내 응급의료기관(9곳)을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제를 유지한다. 물가 분야는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를 지도·단속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나눔 분야는 시·구·동 54곳에 설치한 추석 명절 서로 사랑 나누기 지원 창구를 통해 후원받은 성품을 저소득층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성남=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덕현 연천군수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군수를 비롯해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가동… 불편·사고 신속 대응

공영주차장 69곳 무료 개방

경기 화성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을 주재로 실·국·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재난 대응 및 응급진료·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시는 연휴 기간 종합상황반 운영을 통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종합 상황반은 총괄반을 비롯해 ▲재해대책반 ▲가축질병대책반 ▲비상진료대책반 ▲산불대책반 ▲상·하수도반 ▲연료·에너지대책반 ▲교통대책반 ▲물가대책반 ▲복지대책반 ▲청소대책반 ▲공원관리반 등 총 12개반 566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해대책반은 사람이 몰리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12곳에 대해 소방, 전기, 건축 등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연휴 기간 동안에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발생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교통대책으로는 귀경·귀성길 정체 해소와 시민 부담 경감을 위해 ▲4일부터 7일까지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일부터 9일까지 화성시 유료 공영주차장 69곳 무료 개방 등을 추진한다.

화성=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안보 희생에 수도권 역차별도… 농어촌 기본소득 절실"

연천군, 국회 기자회견서 촉구

경기 연천군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및 농어촌 기본소득유치추진위원회는 4만명 연천군민을 대표해 "한국전쟁 이후 특별한 희생을 이어가는 연천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은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버텨온 접경지역이자 농촌·도서지역이며,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했음에도 지리적으로 수도권 이어서 역차별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소멸위기 농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10월께 약 6개군을 선정하고,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기본소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이 떠나는 농촌이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기본소득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천=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김포 라베니체축제 오는 18일 개최

市, 수상무대서 축하공연·불꽃쇼

체험부스운영·상가할인 이벤트

경기 김포시가 가을을 맞아 오는 18일 장기동 소재 한강중앙공원 및 라베니체 일원에서 '2025 김포 라베니체 축제'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김포 라베니체축제는 가을밤 라베니체 수변 풍경을 배경으로 불꽃쇼와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를 결합해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당일 라베니체에서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수상 및 육상 버스킹 ▲미8군 군악대 퍼레이드 ▲다양한 체험부스 ▲라베니체 상가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오후 6시부터는 한강중앙공원 일원에서 메인행사를 진행한다.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해병대 2사단 군악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금빛수로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이아(아카펠라), 노라조, 윤하 등의 축하공연과 2024년에 이은 화려한 불꽃쇼 또한 준비되고 있어 라베니체축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포=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18일 개막

광주시, 접객업소등 현장점검

행사 기간 현장대응반 운영도

경기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위생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박람회 개막 전인 17일까지(추석 연휴 제외) 행사장인 곤지암도자공원 인근 도시락 배달업체 등 식품접객업소 208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품 관매·사용 여부 ▲조리장 위생 관리 및 방충 시설 설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온도 준수 ▲음식물 재사용 금지 등 식품위생 전반이다.

또한 관람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위해 1~2일 이틀간 행사장 인근 숙박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영업신고증 및 숙박요금표 게시 ▲객실·침구 청결 및 소독 여부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관광객 바가지요금 근절 및 친절 서비스 강화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기간 중에는 현장 대응반을 편성·운영해 음식점·숙박업소의 비위생적 관리, 식중독 의심 신고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대비 사전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기간 중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용원 기자 jyw@siminilbo.co.kr

인천 강화군, 3일 '개천대제'

참성단서 전국체전 성화 채화

인천 강화군이 오는 3일 개천절을 맞아 마니산 참성단에서 '제4357주년 개천대제'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식'를 거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마니산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한민족의 성지로, 강화군에서는 매년 10월3일 민족의 평안과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개천대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55년 제36회 대회 이후 매년 전국체육대회 성화를 채화해 온 전통도 이어오고 있다.

강화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례 봉행은 분향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약송례, 망요례 순으로 진행된다. 초헌관은 박용철 강화군수가, 아헌관은 한승희 강화군의회 의장이, 종헌관은 김철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맡는다.

개천대제와 성화 채화식 이후 성화 봉송에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전국체전 개최지인 부산광역시에 성화를 인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30원'

오산시, 올해보다 350원 인상

경기 오산시가 지난 29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만2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만707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간추린 뉴스

개장식에 참석한 김성제 시장(오른쪽 일곱 번째)이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의왕시, 부곡동 장안마을 황톳길 개장

경기 의왕시가 지난 29일 삼동 612번지 일원에서 '장안마을 황톳길'의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성제 의왕시장, 도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사회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황톳길 걷기 체험을 함께하며 부곡동에 새롭게 마련된 건강시설의 개장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조성된 '장안마을 황톳길'은 폭 2.5m, 총연장 110m의 순환형 보행로로, 70m 구간의 마사토길이 함께 마련돼, 다양한 맨발 걷기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황토볼장, 세족장, 신발장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시는 자연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운동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맨발 길의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 전역에 걸쳐 총 22곳의 다양한 맨발 길이 조성됐으며, 각 시설은 황톳길, 마사토길, 조약돌길 등의 다양한 소재의 보행로와 함께 지역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 특색 있게 꾸며졌다.

의왕=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의정부시, 국정자원 장애 대응 민원창구 연장 운영

경기 의정부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민원 업무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대책으로 민원창구 근무 시간을 연장한다.

시는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부지사 주재) 결과에 따라 같은 날부터 10월2일까지 민원여권과 하나로 창구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연장 근무는 탄력적으로 배치된 직원들이 맡아 진행하며, 시는 전광판과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해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부천호수식물원 가을전시회… 금·토요일 야간 운영

경기 부천시는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에서 15종 3500본의 가을꽃을 전시하는 '가을철 꽃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10월 연휴를 포함해 11월까지 이어지며, 매주 금·토요일에는 야간 운영도 병행한다. '가을철 꽃전시회'는 계절의 정취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아스타, 국화, 맨드라미, 금어초, 백일홍 등 다양한 가을꽃들이 식재돼 화려한 색감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피아식물원 내·외부에 식재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이 설치돼 있어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야간 개장은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시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운영되며, 관람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다.

부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구리시, 연휴 틈탄 오염물질배출 밀착 감시

경기 구리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하천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역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함께 진행된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위반 사항이 있었던 배출업소는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왕숙천과 갈매천 등 주요 하천 등을 대상으로 순찰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환경오염 신고·상담창구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연휴 이후인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리=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인천 남동구도시관리공단-논현署, 주민안전 협약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인천논현경찰서는 서창어울마당에서 지역내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획 설치를 통한 주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전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경찰서 범죄예방과장 등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범죄 취약지에서 경찰의 신속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서창어울마당 주차장을 순찰차 전용 거점 주차구역으로 제공·관리하고,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구역을 활용해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신속한 출동과 순찰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김석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주민 생활 안전을 높이는 실질적 조치로, 공단이 보유한 시설을 지역 치안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